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영역 한문과목 해설지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②	④	②	③	①	③	③	④	②	⑤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⑤	④	①	①	③	①	①	④	④	②
문 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⑤	③	③	②	①	④	⑤	①	②	⑤

[해설]

1. [정 답] ②

[해 설] 제시한 그림에 나오는 사물을 한자로 표현하기

① 石(석) : 돌 ② 寺(사) : 절 ③ 牛(우) : 소 ④ 冠(관) : 갓 ⑤ 橋(교) : 다리

2. [정 답] ④

[해 설] 제시한 한자의 기능에 관련된 한자 찾기

- ① 장구 - 投(투)던지다
- ② 활 - 包(포)싸다
- ③ 안경 - 負(부)들지다
- ④ 만년필 - 記(기)기록하다 <정답>
- ⑤ 종 - 住(주)살다

3. [정 답] ②

[해 설] 조건을 만족하는 한자 찾기

② 洞 부수 水(氵), 총획 9, 1.골(동) 2.통하다, 꿰뚫다(통)

4. [정 답] ③

[해설] 한자의 뜻

- ① 守(수)지키다 ② 告(고)알리다 ③ 洗(세)씻다 ④ 捨(사)버리다 ⑤ 蔽(폐)덮다

5. [정답] ①

[해설] 형성자의 독음

- 日+免=晩(만)저물다, 늦다 ○ 心+鬼=愧(괴)부끄럽다

6. [정답] ③

[해설] 실용한자어

- 童話(동화), 小說(소설), 漫畫(만화)

- ① 茶器(다기) ② 時計(시계) ③ 雜誌(잡지) ④ 郵票(우표) ⑤ 飲料(음료)

7. [정답] ③

[해설] 실용한자어

- 教務(교무), 科學(과학), 放送(방송), 電算(전산), 圖書(도서), 保健(보건)

8. [정답] ④

[해설] 성어의 활용

- 同病相憐(동병상련) :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

9. [정답] ②

[해설] 사자성어 퍼즐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

- ▶ 馬耳東風(마이동풍) ▶ 風樹之嘆(풍수지탄)

10. [정답] ⑤

[해설] 제시된 시의 내용과 관련된 한자어

- ① 占術(점술) ② 自責(자책) ③ 反省(반성) ④ 恭敬(공경) ⑤ 德談(덕담)

11. [정답] ⑤

[해설] 삽화의 비석문 해석

- 下(하) 1. 아래 2. 내리다

12. [정답] ④

[해 설] 일상대화의 내용에 사자성어 적용하기

- ① 百年河清(백년하청) : 황허강[黃河]의 물이 맑아지기를 무작정 기다린다는 뜻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실현될 수 없는, 또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언제까지나 기다림
- ② 事必歸正(사필귀정)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
- ③ 草綠同色(초록동색) :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뜻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게 마련임
- ④ 殺身成仁(살신성인) :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
- ⑤ 愚公移山(우공이산) : 쉬지 않고 꾸준히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일을 이룰 수 있음

13. [정 답] ①

[해 설] 문장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빠진 한자 유추하기

▶ 求則得之 舍則失之 :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 * 舍(사) 버리다(=捨)

14. [정 답] ①

[해 설] 글의 중심내용을 한자어로 이해하기

▶ 曉起, 思朝之所爲之事, 食後, 思晝之所爲之事, 就寢時, 思明日所爲之事 :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할 일을 생각하고, (아침밥을) 먹은 후에 낮에 할 일을 생각하고, 잠자려 할 때에 내일 할 일을 생각한다.

- ① 計劃(계획) ② 忍耐(인내) ③ 配慮(배려) ④ 努力(노력) ⑤ 實行(실행)

15. [정 답] ③

[해 설] 일상에서 한역속담 적용하기

- ① 滿招損 謙受益 :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는다
- ② 始用升授 還以斗受 : 처음에 되로 주고, 도리어 말로 받는다
- ③ 窮人之事 飢亦破鼻 : 궁한 사람의 일은 넘어져도 또한 코가 깨진다
- ④ 矢在弦上 不可不發 : 화살이 시위 위에 있으면 쏘지 않을 수 없다
- ⑤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 외밭에서 신을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쓰지 말라

16. [정 답] ①

[해 설] 「大學」의 八條目 알기

▶ 八條目(팔조목)

格物(격물) : 사물을 궁구하다

致知(치지) : 앎을 이루다(지식을 지극히 하다)

誠意(성의) : 뜻을 성실하게 하다

正心(정심) : 마음을 바르게 하다

修身(수신) : 몸을 닦다

齊家(제가) : 집안을 가지런히 하다

治國(치국) : 나라를 다스리다

平天下(평천하) : 천하를 평정하다

17. [정 답] ①

[해 설] 삽화의 내용과 관련된 한역속담

① 出必告 反必面 :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알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대한다

② 養子息 知親力 : 자식을 길러야 부모의 힘(노고)을 안다

③ 乾處兒臥 濕處母眠 : 마른자리에 아이가 눕고 진자리에 어머니가 잔다

④ 吹之恐飛 執之恐陷 : 불면 날아갈까 두렵고, 잡으면 꺼질까 두렵다

⑤ 父母之年 不可不知矣 : 부모님의 연세는 알지 않을 수 없다

<18~19번 전문 해석>

무릇 백 대의 수레에 실을 수 있는 양은 한 척의 ㉠배에 미치지 못하고, 육지로 가는 천 리길은 배로 가는 만 리길의 편리함만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통상하는 자는 또 반드시 물길을 귀하게 여긴다.

18. [정 답] ④

[해 설] 문장의 내용 이해하기

▶ 수레보다 배로 많은 양의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19. [정 답] ④

[해 설] ‘如’의 통의자 알기

▶ 如 = 若 ⇒ 같다

<20~21번 전문 해석>

무릇 땅에서 생산되어 백성에게 이로운 것을 재화라고 한다. 세상이 지극히 넓어서 생산되는 재화도 각각 다르니 그 형세가 ㉠(轉移)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유통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돈이 만들어진 까닭이다.

20. [정 답] ②

[해 설] 한자어의 짜임

▶ 轉移(전이) :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김 - 병렬

① 到達(도달) : 이르다 - 병렬

② 群雄(군웅) : 여러 영웅 - 수식

③ 捕捉(포착) : 사로잡다 - 병렬

④ 援助(원조) : 돕다 - 병렬

⑤ 睡眠(수면) : 자다 - 병렬

21. [정 답] ⑤

[해 설] 문맥으로 빠진 글자 유추하기

<22~24번 한시 해석>

(가) 일 만 이 천봉 제각기 높고 낮구나

그대 해오름을 보게나 높은 곳이 가장 먼저 붉어질테니

(나) 내게 묻기를 “무슨 일로 푸른 산에 사는가?”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으니 마음은 저절로 한가하다.

복사꽃 흐르는 물이 아득히 흘러가니

별천지에 있는 것이지 인간세계가 아니로다.

22. [정 답] ③

[해 설] 사자성어로 시구의 내용에 적용하기

▶ 금강산의 일만이천 봉우리가 제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비유

① 千篇一律(천편일률) : 사물이 모두 판에 박은 듯이 똑같아 개성이 없음

② 表裏不同(표리부동) : 겉과 속이 같지 않음

③ 各樣各色(각양각색) : 사물의 모양과 생김새가 각각 다름

④ 多事多難(다사다난) :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음

⑤ 雪上加霜(설상가상) :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남. 엮친 데 덮친 격

23. [정 답] ③

[해 설] 한시의 형식과 내용 및 표현

▶ (가)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며 3구와 4구에 對偶(대우) 표현은 없다

▶ (나)의 3구의 계절적 배경은 봄이다.(桃花는 봄에 필)

24. [정 답] ②

[해 설] 한시의 감상

▶ (가)는 해가 뜰 무렵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25~27번 전문 해석>

김 선생은 우스개 소리를 잘하였다. 일찍이 친구의 집을 찾아가니, 주인이 술상을 차렸는데 단지 나물만 차려져 있었다. (주인이) 먼저 사과하며 말했다“ 집은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서 맛있는 안주가 없고 오직 담백할 뿐이어서 이것이 부끄러울 뿐이네.” 때마침 닭 무리가 마당에서 어지러이 모이를 쪼고 있으니 김 선생이 말했다. “대장부는 천금을 아까워 하지 않으니 마땅히 내 말을 잡아 안주로 삼으리라.”주인이 말했다. “말을 잡으면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는가?” 김 선생이 말했다.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가리라.” 주인이 크게 웃고, 닭을 잡아 대접했다.

25. [정 답] ①

[해 설] 한자어의 독음

▶ 淡泊(담박)

26. [정 답] ④

[해 설] 문맥상 빠진 글자 유추하기

▶ ‘대장부는 천금을 아끼지 않는다’ * 惜(석) 1.슬프다 2.아끼다

27. [정 답] ⑤

[해 설] 글의 내용을 삽화로 이해하기

<28~30번 전문 해석>

양혜왕이 말씀하였다. "과인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정성을 다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내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을 하동 지방으로 옮기고 하동의 곡식을 하내로 옮기며, 하동지방에 흉년이 들면 역시 그렇게 합니다. 이웃나라의 정사를 살펴보면, 과인만큼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이웃나라의 백성이 더 줄지 아니하며, 과인의 백성이 더 늘지 아니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청컨대 전쟁으로 비유하겠습니다. 둥둥 둥 북을 쳐서 병기를 접해 싸우다가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고 달아나기를, 어떤 자는 백 걸음을 달아나서 멈추고, 또 어떤 자는 오십 걸음을 달아나다 멈추었는데 오십 걸음 달아났다고 해서 백 걸음 달아난 자를 비웃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왕이) 말하길 "옳지 않습니다. 다만 백 걸음이 아닐 뿐이지 이 또한 달아난 것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께서 만

일 이것을 아신다면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많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28. [정 답] ①

[해 설] 문장 속 한문의 해석순서

▶ 이웃(鄰)나라(國)의(之) 정사를(政) 살피다(察)

29. [정 답] ②

[해 설] 문장 속 어휘의 풀이

① 接 - 접하여 싸우다 ③ 止 - 멈추다 ④ 直 - 다만 ⑤ 是 - 이

30. [정 답] ⑤

[해 설] 문장의 내용 이해